만점믿음 위한 기출문제집

(마태복음 4:1~11)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만점믿음 위한 기출문제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만점믿음 위한 기출문제집'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한국이나 독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때마다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의 중요성은 운전면허시험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시험은 물론이고 각종 분야의 자격증 시험의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집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해마다 고3학생들이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며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책도 바로 기출문제집일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이 중요한 이유는 유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닮은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시험 같습니다. 삶에서 문제 아닌 것이 없고 문제에서 문제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인생이 문제라면 만점인생도 있을까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명되는 장소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렇듯 인생이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만점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만점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만점으로 살 수 있기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만점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만점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점을 자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읽고 나서도 만점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출문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답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 세 문제의 정답은 십자가 생활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추상적 영역의 문제든지 물질적 영역의 문제든지 생물학적 영역의 문제든지 심리학적 영역의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생활화가 답입니다.

다만 답으로써의 십자가 생활화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그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떠올리면 십자가 생활화가 왜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출문제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강하고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예수님처럼 답을 내고 맞춰간다면 만점인생을 위한 만점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절에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장은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오답을 내고 그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기출문제로써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제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대답이 오답이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에 인간과 동일한 유혹을 받으실 수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께

서 개인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기출문제집을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고 답으로 십자가 사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족집게 학원 강사입니다. 만점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만점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꼭 집어서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는 십자가 치매환자 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살인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예수님의 육체에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때에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도 잘 알고 있었으니 능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 것'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며 느끼고 뜻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삶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황에 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을 육체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겠다는 정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십 일간 금식을 마쳤으니 빨리 동네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는 마귀의 계획대로 육체로 인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떡과 물에 대한 해결방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각하고 말하고 살겠노라는 답을 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도에 한 쌍의 남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출이 되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되자 다른 멋진 이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이들이 다른 이성을 찾아가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기회 속에서도 여전히 무인도에서처럼 서로를 향한다면 이들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의 연관성으로 만나는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유로 삼는지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육체는 하나님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택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답안을 제시해주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땅에 속한 자로써 모든 생각을 육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만 기억하는 치매환자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치매에 걸리셔서 배고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십니다.

치매에 걸리면 뇌의 기억장치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인간은 기억에 의존해서 관계를 인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인 이유는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진다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만 기억하는 치매환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치매환자가 배우자에 대한 기억을 잃고 나면 배우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억나는 어떤 대상을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존하는 대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네 배우자다'라고 가르쳐주시면서 배우자에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자리에 있을지라도 사업에 대해 치매환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너 오늘도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시니 출근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니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너는 김 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심각한 치매환자들은 계절이나 환경조차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엄동설한에 티셔츠만 걸치고 밖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티셔츠 한 장으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추워하는 우리에게 오리털 점퍼를 입혀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연관성으로 맺어진 관계와 상황을 죽이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금식하시고 살인적인 굶주림과 목마름 상태에서도 육체에 지배당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치매환자처럼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 기억을 대신해줍니다. 자녀를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녀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치매환자가 되기만 하면 세상에 필요한 기억을 하나님이 대체해 주십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가장 합당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그들도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사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만 기억하는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는 참다운 이웃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주고 싶다면 십자가 치매환자가 되어야합니다. 먼저 자녀를 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해 바르게 마주하는 법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진짜 치매환자처럼 어렵거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밝혀지는 신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본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기출문제 1번의 정답은 십자가 치매환자 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육체가 죽으면 기억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보면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억으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부부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늙어 꼬부라졌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석 같은 영혼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가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입니다.
5~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간단한 명령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 문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모르니 오답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애인에게 의도적으로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나를 얼마나 열심히 찾는가를 관찰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나를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정말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

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기로 하셨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의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의 자녀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뉴스에 나옵니다. 부모의 시야 바깥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한 것으로 인해 물의가 일어난 것임에도, 재벌회장은 이러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언론을 압박합니다. 심지어는 정치계의 인맥까지 동원하여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재벌회장의 비뚤어진 자녀사랑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재벌회장의 비뚤어진 자녀사랑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일 뿐 다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마치 재벌회장이 자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봐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기에 어떤 행동이나 결정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뛰지 않겠다는 대답 대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뛰어내리신 뒤에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구해주시는 그런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장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 인격을 쓰고 있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를 바라시고 부모가 되기도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

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기적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하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가졌던 것입니다.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킨 것 또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뿐이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대가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되더라도 그것은 사장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정말로 세속적인 가치를 다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를 다 받아서 누렸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졌으니 다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이 세상에서 못 이루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한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면 그 여자는 나라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비가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독립 된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돈을 구할지라도 그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써 아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족의 평안을 구할지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주시는 것으로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께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절대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갖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독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능력을 보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를 가장 큰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돈을 바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놓고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하나님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배우자 문

제를 해결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자를 마음에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삶에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의 자녀들처럼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뒤치다꺼리를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방법을 모르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흥으로 꿈꿉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대형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재벌가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손으로 목회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받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 절대 복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세상을 티끌만큼이라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들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니 첫 번째 문항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는 하나님 부자 되기입니다.

8~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왜곡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곧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를 많이 가진 자에게 시선이 주목됩니다.

애초에 좋고 나쁨의 가치를 따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백이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본래 그 공백은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첫째 문항과 둘째 문항과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으리라 믿어지는 대상들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한 가치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이라는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섬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항에서 실천적인 면을 생각하면 십자가 치매환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도 이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뜻대로 해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문항이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문항은 이러한 실천적인 측면의 기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진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을 '경배와 섬김'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다만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뿐임을 믿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돈이 기쁨과 만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추구합니다. 이 믿음에 배반을 당해도 '더 큰 돈이 있어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재벌들도 더 큰 돈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두 믿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근히 돈 벌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막연하게나마 돈 벌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를 기대한다고 해서 모두가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처럼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근처의 부자들만큼이라도 되기만을 바라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다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자가 빌 게이츠라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믿든 노골적으로 믿든 돈의 가치를 믿기에 많이 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숨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은근히 돈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동안 점차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게 됩니다. 돈은 아무리 가져도 기쁨과 만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더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추구할 때에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재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이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방법이고, 십자가 치매환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부자가 됩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빈 채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출문제의 정답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없어서 슬플 때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뿔과 꼬리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에 대해서만 마귀는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세 가지 문항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 줄도 모르며 살았던 이유는 이미 오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밝혀내셨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통해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기출문제를 잘 묵상하시고 훈련하시면서 만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주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본문으로부터 배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묵상하면서 기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만점인생이 쉬워지고 만점믿음이 쉬워질 것입니다. 매년 언론에서 수능만점자들의 숫자를 발표하듯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만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세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에는 세 가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 가지로 분류되는 삶의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며 만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천사들에게 만점자로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